

# 全人教育을 指向하는 建國大學校

權 寧 贊

(建國大 總長)

## 1. 設立背景과 機構 및 建學理念

### 1) 設立背景

건국대학교의 설립 淵源을 추적하여 올라가면 1931년에 創立된 中央實費診療院(현재 본교의 과대학 부속 民衆病院의 前身)에로 연결된다. 設立者 故 劉錫稔 박사는 南滿洲 軍備團 團長으로서 獨立軍을 지휘하였던 劉一夔 선생의 차남으로, 1900년 2월 17일 咸鏡南道 端川郡 利中面 新東村에서 태어났다. 일찌기 京城醫專을 졸업한 청년 의사의 몸으로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힘을 합쳐, 당시 日帝 植民治下에서 신음하는 無產大衆의 救療事業과 保健運動을 목적으로 社會營 中央實費診療院을 1931년 5월 12일에 개원하였다. 이때 이 診療院의 설립을 위하여 45명의 發起 後援會가 조직되었었는데, 여기에는 己未獨立運動 지도자 33인을 중심으로 한 각계 유지들이 참가하였다. 이어 1934년에는 이 診療院을 民衆病院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계속 운영하여 오다가 1939년에 아르러 병원의 규모를 확장하고, 서울 鍾路區 樂園洞(建國大學校 舊樂園洞 校舍 자리)의 舊 西北學會 建물을 매입하여 移轉 開院하게 되었다.

이 건물은 당시로 보면 최신식 서양식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붉은 벽돌 건물로서 유서 깊

은 역사를 간직한 건물이었다. 1908년 李甲·安昌浩 諸氏가 西北 5도민을 중심으로 西北學會를 조직하고, 그 활동 근거지로 삼기 위하여 힘들여 건립한 것으로서, 1910년 西北學會가 해체되자 普成專門學校 專門部(고려대학교 前身)가 1922년까지 사용하였고, 이후 協成實業學校의 교사로 쓰이다가 1939년에 民衆病院이 매입하였던 것이다. 1945년 민족의 해방과 더불어 劉錫稔 박사는 教育立國의 信念 아래 이 건물에다 建國義塾을 창립하게 되었고, 다시 이듬해인 1946년 5월 15일에는 그 建國義塾을 모체로 하여 朝鮮政治學館을 설립하였으니, 이것이 곧 현 건국대학교의 모체였다. 1949년 9월 朝鮮政治學館은 政治大學으로 정식 인가되었고, 1959년 2월 綜合大學인 建國大學校로 승격 확장되면서, 서울 坡東區 毛陳洞의 현재 위치로 학교 본부가 옮겨감에 따라 이 붉은 벽돌 건물은 建國大 二部大學과 財團事務室 등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 이어 1977년 건국대학교의 모든 기구가 성동구 모진동 본교로 이전해 감에 따라서 이 건물은 후일 復元을 전제로 해체되어 보관되었다. 근자 1985년 11월 23일에 성동구 모진동 본교 교정의 호수가의 현 위치에 원상 그대로 復元 준공되었으며, 현재 常虛記念館과 建國大學校 博物館으로 사용하고 있다.



◀ 延慶大는 誠實과 信義를 바탕으로 全人敎育을 지향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캠퍼스 전경.

한편, 民衆病院은 장소를 옮겨 實費 病院으로 계속 운영되어 왔으며, 6·25 事變으로 인하여 一時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었으나, 곧 성동구 모진동의 본교 校地 안에 복구되어 역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救療事業에 힘을 기울여 왔다. 1986년부터 드디어 建國大에 醫科大學이 설치인가되니, 民衆病院은 명실공히 建國大學校 醫科大學 附屬 民衆病院으로 확장 발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 2) 機構

건국대학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93-1에 서울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忠淸北道 忠州市 丹月洞 322에 忠州 캠퍼스를 갖고 있다.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자랑거리인 뒤편에도 광활하게 펼쳐진 평지 위에 넓은 湖水(湖水名—鑑湖)를 캠퍼스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 아침이면 호수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안개처럼 서리고, 무성한 정원수의 숲이 아늑하게 내리깔린 校庭은 登校하는 학생들의 가슴 속을 아늑하게 가라앉혀 주고 있다. 본교의 상징 동물은 황소이다. 어쩌면 황소의 心性과 묵직한 몸짓 그대로가 바로 衰象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캠퍼스에는 文科大學·理科大學·工科大

學·政治大學·法科大學·商經大學·畜產大學·農科大學·生活文化大學·師範大學 등의 10개 單科大學에 52개 學科가 설치되어 있고, 忠州 캠퍼스에는 人文科學大學·社會科學大學·自然科學大學·藝術大學·醫科大學 등 5개 單科大學에 25개의 學科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大學院은 一般大學院 외에 行政大學院·教育大學院·產業大學院·經營大學院·農畜開發大學院·地域開發大學院 등 6개의 特殊大學院이 설치되어 있는데, 地域開發大學院은 忠州 캠퍼스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附設研究所로는 教育研究所·人文科學研究所·社會科學研究所·行政問題研究所·經濟經營研究所·基礎科學研究所·產業技術研究所·畜產科學研究所·農業資源研究所·中國問題研究所·生活文化研究所·學生生活研究所·새마을研究所·環境科學研究所·遺傳工學研究所·中原問題研究所 등이 있는데, 中原問題研究所는 忠州 캠퍼스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附屬機關으로는 서울 캠퍼스에 中央圖書館·博物館·出版部·體育部·生活館·建大社·視聽覺敎育센터·電子計算所·器械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忠州 캠퍼스에는 中原圖書館·視聽覺敎育센터·建大社分局·生活館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大學本部에는 서울 캠퍼스에 敎務處·學生處·總務處·企劃調整處 등 4개의 處가 있고,

忠州 캠퍼스에는 第二敎務處·第二學生處·事務處 등 3개의 處가 있다.

### 3) 建學理念

본교 설립자 故 劉錫昶 박사는 이 나라와 이 겨레를 救濟하는 일에 一念을 바쳤다. 어릴 때 부터 獨立運動에 몸을 바친 부친의 救國理念이 계승된 것으로 보아 틀림없다. 독립 투사들과 함께 가난한 이 백성들을 치료하고자 醫療社會事業體인 中央實費診療院을 설립한 것은 醫療救國理念이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의 해방을 맞이하자 이번에는 나라를 다스릴 人材 養成의 시급함을 절실히 느끼고, 1945년 10월에 바로 建國義塾을 설립하여 學生들을 가르쳤으니 그의 教育立國理念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어서 곧바로 朝鮮政治學館을 설립하고 나아가 政治大學을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하였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그 당시로 보면 政治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리가 만무하였던 시기였다.

얼마 후 나라가 建國되고 사회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자 곧바로 이어서 農村革命을 부르짖으면서 몸소 農村指導者 양성에 여생을 바쳤다. 이 農村復興理念은 우리나라 農村 近代化運動에 있어서 가장 선각자적인 위치에 있음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社團法人 韓國地域社會開發協會를 창립하여 農村 地域의 균형 있는 개발을 촉진시켰고, 또 全國農村技術者協會를 조직하여 영농

기술의 보급과 농업 지도자의 양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 農村技術者協會의 3대 基本理念을 보면 農民의 精神革命·農業의 技術革命·農村의 生活革命이었으니, 劉博士의 農村을 향한 강렬한 執念의 응집이라 볼 수 있다.

건국대학교를 설립한 建學理念은 바로 앞에서 열거한 3대 理念이 결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세 가지의 理念 중에서도 農村復興理念이 가장 강렬하였음이 입증된다. 즉 教育立國의 理念에서 먼저 政治大學을 설립하였지만, 곧바로 學校運營의 방침을 農畜系列 증점 육성 쪽으로 전환시켜 버렸던 것이다. 종합대학인 建國大學校가 설립되면서 畜產大學을 독립시켜 설치하였으며, 다시 農科大學을 또 두었으니 全國의 어느 대학이 畜產大學과 農科大學을 따로 함께 설치한 곳이 있는가를 헤아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畜產大學 입학생에게는 전원 장학금의 혜택을 주었고 전원 기숙사에 수용하여 교육하였다. 現在에 있어서도 이 숭고한 精神에 입각하여 畜產大學 學生들에게는 특별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 결과 우리나라 農畜關係分野에는 본교 축산대학 출신 지도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理念을 根幹으로 하여 발전한 건국대학교의 校是는 誠·信·義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誠은 진실과 지성을 뜻하며, 信은 社會生活의 근간이라 하였고, 義는 정의와 용기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建學精神’을 명문으로 설정해 놓았으니, 「校誌」(建國大學校 설

건국대는 醫療救國·教育立國·農村復興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사진은 건국대 개교 3주년 기념식('49.5.15)에서의 白凡 金九 선생 축사 장면



립에서부터 1970년까지의 校史) 第一輯에 실린 것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본교의 설립자 劉錫綬 박사는 해방된 조국이 다시는 불행한 운명을 밟지 않고 영구히 자유·민주·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참된 복지 문화 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고도의 문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그 첫 단계로 농업과 공업이 아울러 현대화된 산업 국가가 건설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경제 국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때에는 우리가 염원하는 복지 문화 국가로 손쉽게 옮겨가게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 고도의 문화 국가를 이룩하여 나아감에는 반드시 처음부터 갖추어져야 할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그 첫째는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국민성의 함양이요, 그 둘째는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였다. 모든 국민이 이러한 기본적인 요인을 갖추게 되는 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명을 수행할 선도적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느낀 유박사는 그러한 교육 사업에 그의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영재를 모아 인간 교육에 치중하여 誠과 信과 義의 덕성을 기르며,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용기있는 개척자적 정신을 가진 인격을 배양하는 동시에, 고도의 과학과 기술로 무장하여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걸머지는 유능한 선도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대학의 진학 정신인 것이다.”

## 2. 學校 發展을 위한 勞力

### 1) 教育 環境의 개선

大學教育에 있어서 講義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教育 環境은 아마도 圖書館을 꼽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간에 늘어나는 學生數에 비하여 열람석의 확충은 커다란 압박 요인이었다. 中央圖書館만으로는 부족하여 각 單科大學別로 도서실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또 학생회관의 휴식 공간을 도서실로 개조하여 이용하는 임시변통을 해 오다가, 지난 해에 국내 대학 도서관으로서의 최대 규모인 새로운 中央圖書館(常虛記念圖書館)을 착공하였다. 연 건평 7천여 평에 달하는 것으로서 공사비가 120억 원 가

까이 투입되고 있는데, 내년 1989년 상반기에는 開館될 예정이다. 물론 작년에는 忠州 캠퍼스에 새로운 圖書館을 신축 개관한 바 있다. 이 새로 건립되는 常虛記念 中央圖書館에는 백만 권 이상의 藏書를 保有하고, 機能別로 配置되는 열람실 이외에 각종 학술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도 함께 마련되고 있으며, 모든 運營이 컴퓨터化될 計劃이다. 문자 그대로 發展하는 建國大學校의 象徴적인 教育 研究 시설이 될 것이다.

한편, 각종 國家考試(사법·행정·외무·공인 회계사·기술고사 등 기타) 준비생들을 위한 考試館이 새로이 독립 건물로 신축되었다. 여기에는 지망하는 학생들의 入館 申請을 받아서 일정 시험을 거친 다음에 입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편의를 제공하여 研究에 단전을 기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寄宿舍의 施設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畜産大學 학생들만을 위한 誠館이 남은 건물을 헐고 몇 년 전에 新築되었는데, 시설면에서 매우 우수한 寄宿舍로 꼽히고 있으며, 일반 학생들을 위한 信館 또한 이번의 考試館 준공으로 인하여 수용 능력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寄宿舍에 있어서는 서울 캠퍼스보다 忠州 캠퍼스가 더욱 시급하게 增築되어야 할 형편이다. 현재의 남학생 기숙사도 더욱 확장하여야 하겠지만, 여학생 기숙사는 年內에 着工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醫科大學의 설립이 오래지 않아서 금년에 本科에 進入하는 학년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醫豫科의 校舍 新築에 이어 醫大 本科 建物の 新築 完工에 迫車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忠州 現地에서의 附屬病院 設置가 時急한 실정이다. 현재 그 基礎적인 준비 작업은 完成이 되었으며, 아울러 서울의 기존 民衆病院도 명실공히 大學 附屬病院으로서의 손색 없는 면모를 갖추려고 增設 計劃을 수립해 놓고 있다.

實驗實習 시설의 보완을 위한 노력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農畜産系列의 實習場 확장을 위하여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保有하고 있는 坡州 牧場 이외에 서울 近郊에다 綜合畜産 시설을 갖출 계획을 수립하여 곧 시행할 단계에 있다. 현재 校內에 있는 우유 처리장과 肉加工場 및 사료 공장 등을 校外로 이전하

여 綜合化하려는 계획인 것이다. 이는 設立者의 農畜産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이어받아, 이 方面에 큰 힘을 쏟는다는 學校 나름대로의 意志라 볼 수 있다. 忠州 캠퍼스에도 현재의 農·畜 實習場 외에 隣近 槐山郡에 60만 평의 實習林을 이미 확보하여 개발중에 있다.

## 2) 教育 內容의 개선

教育 內容의 개선에는 두 가지 면에 重點을 두고 있다. 첫째는 교과과정의 適正化이고, 둘째는 교수 방법의 現代化이다. 근래 몇 년 사이에 大學 敎養教育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討論會나 세미나 및 評價作業 등이 빈번히 행해졌었다. 본교는 이러한 논의가 미처 일어나기 전에 제반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교과과정의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진행되었고, 현재 새로운 교과과정 시행의 제3차 연도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하여 必須科目의 조정과 선택 과목에 대한 多樣化를 꾀하였다. 그리고 敎科目的 명칭도 바꾸었으며, 따라서 敎材의 內容도 時代에 부응하도록 개편하였다. 예를 들면, 국민 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명칭으로 학습하여 오던 '국어' 과목은 그 명칭이 사라졌으며, '철학', '국민윤리' 등도 교과과정상에 명칭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언어·문학·종교·인류문화·법률·경제·여성학·전산학 같은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폭을 넓히는 데에 힘썼다.

그러나 지난 해를 고비로, 또한 社會的으로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고, 학생들의 欲求 또한 더 많은 것을 要求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4년의 週期가 돌아가는 내년을 고비로 다시 교과과정의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다음으로 교수 방법의 現代化는 해마다 敎授 練修會 등을 통하여 改善을 위한 發表會 및 討論會를 개최하여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 습득한 지식은 時代의 변천에 따라서 陳腐해질 수도 있고, 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研究와 새 技術이 發達해 가고 있는 現代에 부응하는 교수 방법의 啓發은 教育의 必須要件임을 인식하도록 온갖 지원과 노력을 아

끼지 않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매년 學校와 財團의 예산으로 교수 10~12명 정도를 海外에 파견하여 연구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文敎部 支援 해의 파견 교수와 합치면 더 많은 교수가 海外研修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고 있는 實情이다. 뿐만 아니라 美洲地域과 歐州地域 및 東南亞地域에 많은 자매 학교를 체결하여 敎授 및 學生의 交流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相互交換하여 合同으로 각종 세미나와 發表會를 개최하고 있다.

본교의 研究所는 각 學問領域의 특성에 따라 單科大學 중심으로 설치되어 研究 活動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中國問題研究所는 해마다 校外에서 專門家 學者들을 초빙하여 알찬 研究發表會를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基礎科學研究所는 政府 支援 研究機關으로 되어 있다. 또 中原研究所는 忠州地域의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지역 사회와 연관을 맺어서 研究發表會를 개최하고 있다.

## 3. 前進的인 計劃의 수립과 활동

건국대학교는 設立者의 理想과 建學精神의 바탕 위에서 未來指向的인 몇 가지의 構想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財團의 劉承潤 理事長의 숙원 사업이기도 한, 일대 前進的인 學園中興計劃이라 볼 수 있다. 그 중요한 몇 가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世界 속의 大學으로서 그 位置를 공고하게 다지고, 世界史를 先導하는 大學으로서의 使命을 수행하기 위하여 海外 캠퍼스의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그간에 財團에서 추진하여 온 결과를 보면, 美國 로스앤젤레스에 건국대학교의 海外 現地法人 學校 設立이 推進되어서 3년 이내에 在美 韓國人 2世 新入生을 모집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 美洲 地域 캠퍼스 設立은 現地에서 後援會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美洲 地域의 백만 교포들에게 韓民族의 精神을 심어주고 祖國의 實情을 바로 認識하게 하는 教育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本校와 世界 여러 지역의 大學들간에 있어서의 學術的·文化的 交流를 위한 橋樑 구실을 담당함으로써

건국대학교의 國際的 地位 向上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는 財團法人 建國大學園 산하에 常虛文化財團을 設立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 속에는 民族文化研究院·常虛思想研究院·常虛記念事業會·建國獎學會 등을 총괄하게 될 것인데, 設立者인 常虛先生의 愛國愛族과 救療濟民 및 福祉農村 建設이라는 理想을 教育立國의 精神에 융합시켜 具顯하려는 意志로 볼 수 있다. 이 文化財團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면, 먼저 民族文化研究院에서는 世界 33 개국에 분산되어 있는 300 만 우리 교포들의 諸般 問題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韓民族間의 交流와 同質化를 위한 事業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常虛思想研究院과 常虛記念事業會, 建國獎學會 등과 함께 常虛의 思想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國際學術會議의 개최와 研究論叢의 발간 및 學術情報의 交換 등 다양한 國際化時代의 교량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特記할 일은 常虛文化大賞 제도의 제정이다. 本 文化財團에서는 學術·醫療·農業·教育·言論·社會 등의 分野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認定되는 사람을 國內·外的으로 선정하여 매년 大賞을 施賞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이 事業은 이미 구체적인 단계에까지 進전되고 있다.

세째는 ‘國際文化센터(International Culture Center)’를 建립하여 大學文化의 暢達에 기여하는 일이다. 이 센터의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서울 캠퍼스의 電鐵 건너편에 위치한 學校 敷地에다가, 우리나라 모든 大學人과 靑少年들뿐만 아니라 外國人 留學生들을 위한 각종 文化施設을 갖추어 利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올해 안

에 이에 대한 基礎的인 作業이 完成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大學文化의 產室로서 크게 脚光을 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

#### 4. 맺는 말

大學은 學問을 하는 곳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學生이 入學하고 또 졸업을 하여 나가는 生氣 있는 殿堂이다. 돌고 있는 물레방아는 얼지 않는다 는 말이 있듯이, 新鮮美를 잃으면 大學은 그 使命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 건국대학교의 發展을 생각하면서 항상 ‘日新 日新 又日新’의 가르침에 충실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살아서 숨쉬는 大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一念下에서, 나날이 변천하는 時代的인 欲求가 무엇인지를 깊이 통찰하고, 그리하여 傳統과의 調和를 꾀하는 溫故知新의 精神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부하는 學生과 研究하는 教授가 大學의 理想일 수 있다면, 그와 같은 與件 造成에 學校 運營의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學校의 發展은 모든 教育 環境과 制度 역시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움직이는 人的 要素가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은 共知의 사실이다. 우수한 學生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心血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능한 教授陣의 확보를 위하여 國內의 각 大學院은 물론 海外의 유명한 大學에까지 모집 광고를 내고 있다. 그리고 學生 體育活動을 통한 學校 名譽의 宣揚 또한 결코 적은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誠實과 信念을 바탕으로 하여 學生과 學校가 한마음이 되어서 全人教育의 場이 되게 하기 위한 勞力を 아끼지 않고 있다. \*